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사무국장: 박정진	<p>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기 대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소가 협소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박정진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기 대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p>홍순봉 회장님의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p>
의장: 홍순봉	<p>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총 17분 중에 12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간에 또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p>
국민의례 및 의장인사	
사무국장: 박정진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p>우리 회장님들 지방에서부터 어쨌든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p>우리가 사단법인이 인가가 난 지가 이제 한 4년이 지났는데요. 2019년도 20년도부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의원총회도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계기가 잘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우리 대의원님들, 우리 회장님들을 함께 한 자리에서 모시고 대의원총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스포츠연맹이 그동안은 어쨌든 법인이 아니었다가 문체부 사단법인으로서 하면서 그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을 1회로 처음으로 충남 예산에서 할 수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체육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p> <p>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지부에 교실 사업을 1지부 1개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p> <p>그 다음에 어쨌든 대회 개최 비용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몇 개 지부에서는 지부에서 원한다면 대회 개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은 사실은 좀 확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목표가 원래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한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요청을 지난주에 해놓고 있습니</p>

	<p>다.</p> <p>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주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문체부장관을 같이 만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장관을 만나서 내년 예산은 꼭 정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오늘은 사실 우리 회장님들이 스포츠 연맹 회장님이나 또 연합회 회장님들 같이 겸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앞 시간 타임에 두 분 오시게 하는 것보다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오늘 12시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p> <p>양해해 주시고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어차피 스포츠 연맹 사업이 연합회하고 모든 회원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스포츠연맹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각 지부에 내려가고 돌아가는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요.</p> <p>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중앙위는 중앙위대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부로...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면 100% 다 내려가는 겁니다.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쨌든 체육대제전도 나중에는 지부에서 순회 개최 사업으로 돌릴 겁니다.</p> <p>전국장애인체전을 하듯이 시각장애인 전국 체전을 만들 생각입니다.</p> <p>그래서 지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미리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중앙에 예산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그 지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회장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p> <p>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사말은 이걸로 대신하고요.</p>
회순채택	
의장: 홍순봉	<p>그 다음에 회순은 보고 사항이, 전차회의록 초록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가 있고 임원 승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및 이제 보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건 심의는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이 있습니다.</p> <p>그거는 의결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건이 있는데요.</p> <p>보고 사항을 어쨌든 여러분 회장님들 유인물로 다 드렸는데 중요 사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p>
대의원 일동	네
의장: 홍순봉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홍순봉	네, 전차회의록 초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진	<p>회의명 2022년 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스포츠연맹 정기 대의원 총회.</p> <p>정기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대상 서면을 통한 심의 의결로 진행되었으며</p>

	<p>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간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p> <p>보고 사항으로 전차 회의록 초록 보고, 감사 보고, 임원 선임 보고,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의결 사항으로 2021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과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p> <p>네, 이상입니다.</p>
의장: 홍순봉	전차 회의록에 오기 됐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홍순봉	그러면 원하는 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의원 일동	예
의장: 홍순봉	감사합니다.
의장: 홍순봉	의사봉
의장: 홍순봉	<p>두 번째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감사 보고를 이걸 감사님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p>
대의원 일동	네
의장: 홍순봉	그러면 감사 보고를 한번 읽어주시죠
대전: 이상용	그런데 여기 감사님이 누구예요?
의장: 홍순봉	<p>원래 윤상원 전 서울지부장님이 감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외부 감사로.</p> <p>그리고 윤상원 감사님이 이제 감사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감사가 임기가 다 돼서 그만 두셨는데 이제 감사는 사실 대의원 중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임기가 윤상원 감사님 임기가 이번으로 끝이 났습니다.</p>
대전: 이상용	예예
의장: 홍순봉	감사 보고서 내용을 읽어주시죠.
사무국장: 박정진	<p>네 감사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연맹 회의실에서 감사 두 분께서 감사단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행정 사항 등입니다. 감사 보고서를 감사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감사 보고서, 회계감사 결과 우리는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자금 계산서 운영 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여 감사한 바, 일반 회계의 총 세입 10억 6,890만 8,358원, 총세출 10억 773만 8,390원 총세입 세출 잔액은 6,116만 9,968원이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 출납 계정 총수입 1억 1,371만 5,149원, 총지출 1억 287만 9,114원, 총수입 지출 잔액은 1,083만 635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7억 원 법인화 지원금은 예치된 정기에금입니다. 현재 자산 현황으로 기본 재산인 법인화 지원금 7억 원과 보통재산</p>

	<p>사무기기 차량 등 1억 7,077만 7,337원, 총자산 8억 7,077만 7,337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하며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 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연맹의 예치된 법인화지원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과실금을 사업비나 법인자립을 위한 재산 축적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2020년 정기이사회에서 법인화지원금을 건물 매입 및 건물 보증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나 아직 주무부처의 법인화지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자체예산을 통해 작년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었으나 아직 법인 자립을 위해서는 법인화지원금의 과실금을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의 위상에 맞게 재정자립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법인화지원금 및 과실금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p> <p>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년 ‘법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한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지원, 종목별대회개최 지원, 어울림대회개최 지원 등 시도지부에 지원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 지원되어 전국에 균형적인 시각장애인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스포츠대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우리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전국시각장애인스포츠대제전’을 통해 시각장애인 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의 규모가 더욱 확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등급분류 사업,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스포츠 캠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등 중요한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꾸준한 노력은 매우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연맹에서는 전문체육 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보급과 유소년 선수들의 육성도 같이 추진해 나가며 학생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있는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연간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해에도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연맹이 요구하는 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p> <p>이상의 감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p> <p>2023년 1월 30일 감사 임진영 감사 윤상원, 이상입니다.</p>
의장: 홍순봉	감사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대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홍순봉	이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대의원 일동	네
의장: 홍순봉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감사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의사봉
의장: 홍순봉	<p>다음은 임원 선임 보고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초에 사실은 선임돼 있다가 등기는 이제 작년 9월에 등기를 했었는데 두 분이 선임이 되었는데요. 한 분은 이제 유석영 지금 곰두리 관장으로 계시고, 우리가 선임되고 난 뒤에 나중에 곰두리 관장님으로 가시게 되신 분입니다.</p> <p>이분이 원래 구두 만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렇게 하신 분이요 또 국회 쪽하고 여러 또 관계하시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예산 작업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분도 부회장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한 분 이사는 이제 부산에 있는 권종민이라고, 이분이 이제 안마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두 분으로 모시게 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의장: 홍순봉	<p>그러면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이건 사업 보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면 되겠죠?</p>
대의원 일동	네
의장: 홍순봉	오늘 특이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진	<p>네, 먼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장애인 체육 법인 단체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체육진흥 사업 예산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첫 번째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실 사업과 같이 400만 원 3개소를 지원하여 1,2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두 번째 사업으로 시각장애 학생 체육활동 지원입니다.</p> <p>유소년 스포츠캠프를 개최하여 유소년 대상으로 쇼다운, 시각 축구, 볼링 등 시각 종목을 체험하는 체험 캠프와 전문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는 종목 체험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총 4천만 원입니다.</p> <p>세 번째로는 어울림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어울림 대회 개최 지원은 공모를 통하여 2개의 지부를 1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p> <p>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하여 대회를 개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p> <p>네 번째는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사업입니다. 국제대회 참가는 IBSA 종목 골볼, 볼링, 쇼다운 시각 축구 등 1개의 종목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천만 원입니다.</p> <p>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내대회 개최</p>

	<p>지원도 우리 시도 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p> <p>여섯 번째는 국제 심판 강습회 개최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취소된 국제 쇼다운 심판 강습회를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p> <p>일곱 번째로 시각장애인 체육 발전 연수회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행정 지도자, 임원 및 시각장애인 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발전 논의를 하는 연수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p>
회장: 홍순봉	<p>이 부분은 우리 회장님들하고 또 이사들하고 같이 한번 1박 2일로 하면서 스포츠에 관련된 체육회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런 저런 우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p>
사무국장: 박정진	<p>네, 여덟 번째 사업으로 시도지부 실무자 연수회입니다.</p> <p>우리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지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정산 행정 교육 등 대제전 참가 요강 등에 대한 사업 계획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소요 예산은 700만원입니다.</p>
의장: 홍순봉	<p>우리 회장님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교육이 있으면 꼭 보내주셔야 앞으로 교실 사업이라든지 대회 개최 사업 공모라든지 또 아니면 체육 대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꼭 좀 실무자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오는 게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오셔도 같이 오시면 되는데 네 안 오시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실무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p>
사무국장: 박정진	<p>네 다음 사업은 국제 스포츠 교류 사업입니다.</p> <p>올해에는 상주 아시아경기대회와 IBSA 정기 총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p> <p>마지막 10번째, 제2회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회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을 같은 규모와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9월 15일, 9월 중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p> <p>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 10개의 세부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p>
부산: 김성홍	<p>국장님, 9번 국제스포츠교류 한번만 더 설명해주겠습니까?</p>
사무국장: 박정진	<p>네, 국제 스포츠 교류 사업은 저희가 국제 행사와 회의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올해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때 있을 대회에 참가하는 사업과 IBSA 정기총회가 올해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p> <p>그래서 그때 회의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p>
대전: 이상용	<p>아까 보니까 국제 스포츠 참가 쇼다운 있잖아요.</p> <p>쇼다운에 아직 정식 종목 채택이 안 됐잖아요.</p>
사무국장: 박정진	<p>체전에서는 아직 정식 종목으로 채택은 안 됐는데요.</p>

	올해 개최되는 IBSA 월드컵에는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홍순봉	IBSA의 종합대회는 정식 종목이고요.
부산: 김성홍	전국 체전은 아직 정식 종목 안 됐죠?
의장: 홍순봉	<p>네, 우리 체전은 시범 경기 종목인데, 제가 강력하게 체육회에다가 이야기 해서 올 3월 초에 체전위원회가 열려요. 그때에 정식 종목이 될지 안 될지 올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3월 초에 체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p> <p>근데 쇼다운이, 이 게임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IBSA 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시아 정도만, 몇 개국에서 확산이 되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나중에는 결국 패럴림픽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의 시각장애인 종목으로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p>
대전: 이상용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탁구보다 오히려 쇼다운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의장: 홍순봉	탁구는 사실은 어렵죠. 탁구는 몇몇이 사실은 체전 종목이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 평소에는 탁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전: 이상용	네, 그런 것 같아요. 쇼다운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김성홍	쇼다운은 젊은 인구가 많아요.
의장: 홍순봉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진	<p>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000만 원이며 400만 원 12개소 200만 원 1개소 총 13개의 개소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p> <p>이거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우리 시도 지부를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p>
의장: 홍순봉	이번 이 교실 사업은 좀 뭔가 우리 지부에서 좀 뭔가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 교실 사업을 꼭 신청을 한 지부에 한 건씩은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진	<p>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으로 총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p> <p>먼저, 등급 분류 온라인 강습회가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p> <p>예산은 총 1,200만 원이고 다음은 쇼다운 국내 심판 강습회, 그 다음 시각 축구 국내 심판 강습회가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총 예산 2,700만 원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p> <p>다음은 장애인 국내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p>

	<p>유형별 국내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쇼다운 선수권 대회를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p> <p>3월 4일부터 5일,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이 대회는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IBSA 월드컵의 쇼다운 국가대표 선발을 겸하는 대회로 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총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참가 예산입니다.</p> <p>올해에는 IBSA 청소년 경기대회와 IBSA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대로 2개의 종합대회 참가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p> <p>먼저 IBSA 청소년 경기대회는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회 종목은 골볼 1개 종목으로 남자부와 여자부 총 대한민국 선수단 20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p> <p>다음은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참가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11개 종목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 기간은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은 총 4개 종목에 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가 예산은 4억 5,400만 원입니다.</p> <p>네, 이상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p>
의장: 홍순봉	우리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대전 이상용	저 IBSA 참가 예산은 예산이 확보된 것인가요?
의장: 홍순봉	<p>네,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출전하는 거라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p> <p>이 부분은 별도, 상시 예산이 아니고 있는 해만 이제 받는 겁니다.</p>
대전: 이상용	예전에는 이게 우리 스포츠연맹이 연합회에 있을 때 들어와서 연맹으로 보내는...
의장: 홍순봉	그때도 스포츠 연맹에서 바로 받았습니까. 그때 법인이 아닐 때도 스포츠 연맹에서 받았습니까.
대전: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진	종합대회 참가 예산은 경기에 참가하는 인원과 체육회 예산에 따라서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조형석	조형석입니다. 등급분류 심사와 관련해서 등급 분류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검사비를 신인 선수들에 한해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주시는...
의장: 홍순봉	<p>그렇습니다. 회장님 잘 질문하셨습니다.</p> <p>이거를 제가 이번에 대한장애체육회 이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걸 이제 의사의 검사비를 실행비라고 그러거든요.</p> <p>시각장애인들이 검사받는데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지원을 좀 해 달라, 체육회에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달쯤 되면 이 부분에서 이</p>

	<p>거는 별도 예산을 사실은 확보 차원이 아니라 체육회 예산을 쪼개서 쓰자, 우리한테 좀 달라, 등급 분류에 관련된 예산을... 그래서 지금 체육회하고 지금 밀당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아마 3월 달 이 부분에서는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 등급 분류가 아니면 대회 출전이 어렵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체전이든 뭐든 그래서 우리가 34분을 만드는 거는 각 시도에도 1명씩은 적어도 1명 이상씩은 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서울로 와야 되니까요.</p> <p>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p> <p>그런데 사실은 의사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전에는 30만 원씩 막 비용이 들 때도 있었어요.</p> <p>근데 이제는 이제 인식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생겨서 한 평균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십 몇 만 원 아니면 10만 원도 안 들고 한 5~6만 원에 끝나는 부분들도 있어요.</p>
서울: 조형석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의장: 홍순봉	편차가 심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최대 실비 정도로. 1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자 지금 계속 체육회하고 제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되면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조형석	기대하겠습니다.
충남: 박재홍	<p>이 의무 등급을 하는 의사들을 지부장님이 이 부분은 각 안과에 특별히 신경쓰는 의사분들이 계세요.</p> <p>저희 충남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의 의사들로 거의 그전에는 순천향대학이나 대학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이 의료 부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등급 분류의 돈을 따로 받지만 개인 병원 의사들을 이 등급 분류의 교육을 충분하게 받게 하면 그 분들은 일반 진료비만 가지고도 의무 등급이 돼요.</p>
의장: 홍순봉	네, 맞습니다.
충남: 박재홍	우리 지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솔직한 얘기로 의무 등급이기 때문에 선수가 못 나온다. 이런 소리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
충북: 박상재	개인 병원도 되는 거예요?
의장: 홍순봉	네네, 등급분류사 선생님이 우리가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김성홍	개인 의원 같은 데를 인정을 해줍니까?
의장: 홍순봉	안과는 인정이 됩니다.
부산: 김성홍	우리가 대형병원 대학병원급이나...
의장: 홍순봉	아닙니다. 안과 의사 자격만 있으면 면허만 있으면 등급 분류사 자격이 가능합니다.
충북: 박상재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개인 병원까지 다 이제 허용을 해주면 그 부정.. 시각장애인들도 정안인들이 돈을 주고서 자격등급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좀 나올 수...
의장: 홍순봉	<p>사실은 그런 게 유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는데요.</p> <p>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차피 국제대회에 가거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으면 장애인 선수로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p> <p>그래서 이런 등급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명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은 사실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 왜 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게 없는데...</p> <p>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p> <p>그러면 아까 우리 박정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또 시각장애인이 자주 가는 병원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p> <p>네 그런 의사님들을 안과 의사를 등급 분류사로 좀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서 등급분류사 자격을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p> <p>저는 나중에는 사실은 의사들이 생기는 게 없으니까 이걸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한테도 한 건당 한 5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체육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p> <p>그래야 의사들이 계속 등급분류사를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본인들이 5만 원이 돈도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한 건당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당장은 의사한테까지 준다고 하면 그거 확보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 검사비만 좀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p>
대전: 이상용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장: 홍순봉	지금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정도로 계속 하루 정도를 한 온라인을 해서 교육을 하고, 계속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수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성홍	1년에 한 번...
의장: 홍순봉	네네
부산: 김성홍	그러면 의사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의장: 홍순봉	네네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한 11월이나 그쯤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성홍	할 때 다 같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의장: 홍순봉	그렇죠
부산: 김성홍	그럼 시간은 하루인데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정진	<p>예 저희가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데요.</p> <p>수료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편</p>

	한 시간대에 부분부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수하시고 최종적으로 문제까지 실시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형태로...
의장: 홍순봉	온라인으로 본인이 그걸 듣고 주 안에 온라인으로...
전남: 박춘복	그 기간 동안 3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의장: 홍순봉	그렇죠 그렇죠
사무국장: 박정진	시험을 통과하시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산: 김성홍	그러면 편하시겠네요.
의장: 홍순봉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급분류 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상의를 해서 어쨌든 그런 기준들을 정해주고 우리가 바뀐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공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 매년 다시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등급분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부산: 김성홍	사실은 그렇죠.
의장: 홍순봉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등급 보수 교육을. 매년 자격 유지를 위해서...
대전: 이상용	보수교육도 온라인입니까?
의장: 홍순봉	네, 한 자리에 오시라면 절대 못 옵니다.
부산: 김성홍	그럼 지금 우리가 명수는 제한이 없네요.
의장: 홍순봉	그렇죠. 명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이 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성홍	지금 부산에는 몇 분이나 계시죠?
의장: 홍순봉	부산에 몇 명이 있어요?
사무국장: 박정진	부산에 두 분 계십니다. 부산성모안과와 부산카톨릭의료원 두 곳입니다.
부산: 김성홍	큰 병원이네요. 개인 병원은 없네요.
사무국장: 박정진	저희가 참가 모집 전에 우리 시도 지부에 등급분류사 추천을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홍순봉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들한테 꼭 추천해달라고 의사들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사실 추천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산: 김성홍	필히 하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이렇게 다른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대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홍순봉	네,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의사봉

의장: 홍순봉	그러면 안건 심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의사봉
안건심의	
의장: 홍순봉	안건 심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이상용	아까 감사 보고로...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강원: 임조성	의장. 23년 사업 계획안하고 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의장: 홍순봉	<p>아,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요. 달라진 거는 원래 세계 대회하고 청소년 대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지, 작년하고 사업에 대해서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p> <p>그리고 체육 대제전 제2회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강원도 쪽에서 또 체육, 어쨌든 경기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개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어쨌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또 임조성 회장님,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작년에는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 했었어요. 작년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이 그냥 개최식을 했고 대회를 치렀잖아요. 이제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에 좀 갖다 들이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후원을 좀 받아와서 우리 시각 종목도 앞으로 뭔가 시각장애인들이 대축제를 한번 해야 된다 이거, 저는 욕심 많아요. 사실은 종목도 이것저것도 해보고, 옛날에 우리가 했던 야구 대회도, 지금은 사라지는 그런...시각장애인 야구대회도 한번 개최하고 싶고. 그때 했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가지고 실질적으로...제 욕심에는 사실은 씨름 대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p>
부산: 김성홍	아 그것 참 괜찮겠네요.
의장: 홍순봉	<p>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씨름협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부터 정부에서 우리 씨름을 활성화시키고 장려 한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p> <p>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접촉을 해볼 생각이요. 시각장애인 야구대회는 아마 야구 협회 쪽이나 야구 선수를 좀 접촉을 해서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후원을 정말로 따오든, 또 정부 예산을 늘리든,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예산이 사실은 우리 시각장애인 회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회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스포츠가, 사실은 저는 스포츠가 시각장애인들, 어느 장애인들도 재활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스포츠가, 감각이든, 모든 재활의 스포츠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운동이 부</p>

	족하니까. 생활 체육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원 일동	예.
부산: 김성홍	올해는, 작년에 우리 1회 참석 해본 회원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회장님, 많이 뛰셔가지고 돈 좀 많이 끌어와서 상금 1, 2, 3등 다만 몇 분씩이라도 주면은 더 좋아할텐데.
의장: 홍순봉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1, 2, 3등은 시도별 시상을...
강원: 임조성	의장님.
의장: 홍순봉	예.
강원: 임조성	체육대제전 이 대회에는 상금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사회 때 했다가 상금은 절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상금 말고 다른 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김성홍	상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강원: 임조성	안된답니다. 정식 대회는 절대 상금이 안 된대요.
의장: 홍순봉	사실은 이 보조금으로 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대회는 종합대회잖아요? 전국 체전에 상금 없잖아요?
강원: 임조성	똑같습니다.
의장: 홍순봉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금을 하면 대회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뭐냐 하면 개인전에서 이게 경기별로 상금은 안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쨌든 시도별로 대응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식사값이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산: 김성홍	임회장님 말씀대로 다른 인센티브를 만든다든지...
의장: 홍순봉	대회 안에서 선수들이 뭔가 그러면 쇼다운, 축구대회를 했는데 1, 2, 3등을 해 갖고 상금을 주고, 또 볼링을 또 상금을 주고, 골볼을 상금을 주고. 이렇게는...
부산: 김성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모든 전 세계에 종합 대회에 상금을 주는 대회는 없습니다. 경기 한 종목을 개최할 때는 상금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종합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부산: 김성홍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는 줄 수 있도록...
의장: 홍순봉	예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김성홍	예.
강원: 임조성	본 건은 감사 보고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홍순봉	그러면 우리 임조성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되어있고 그러면 감사 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대의원 일동	예.
의장: 홍순봉	그러면 원안대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순봉	의사봉

기타 안전심의

의장: 홍순봉	예, 감사합니다. 준비된 안전은 다 끝났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들이 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논의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 임조성	네, 그 체육대제전 건인데요. 일단 횡성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이제 접촉을 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횡성 군수가 이 대회를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려면 횡성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 김성홍	예. 역할 드려요. 좀.
강원: 임조성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는 이미 추경이 몽땅 끝나서 새로운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원 사업비를 지금 얘기를 해서 일단 의원 사업비를 3천만 원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의장: 홍순봉	어, 그렇습니까?
부산: 김성홍	별써요?
강원: 임조성	의원사업비 3천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체육회 이사회 때 사무처장님 만나서 횡성 군사하고 면담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사무처장이 직접 가서 만나서 해결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 생활체육 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900은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횡성군에서 제가 아는 거기 센터장님이라든가 회장한테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받으면 한 4,900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요거 요거는 그겁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래도 도지사라도 부르려면 적어도 강원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횡성군수한테 역할이 있어야 되고...그런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의장: 홍순봉	그거는 꾸준히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하거나,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무슨 개인적인 업체나 어쨌든 그런 후원은 할 때는 현수막을 걸든지 경기장에 벽면에다가 노출을 시키든지, 이렇게도 한번 지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고 나오거나 사진을 다 찍어서 그 후원 업체들을 그렇게 책자에다가 넣을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좀 체육회 쪽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도 한번 좀 대회 기간 동안에는 장애 체험도 되고 인식 개선도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불러들여서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인원들을 좀 많이 늘려서 좀 관심도 가져주고. 거기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임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도 어쨌든 좀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또 국민의 힘 쪽을 통해서 지사님 쪽으로도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강원: 임조성	지사님은 우리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가서 이런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6월에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처음으로 장애인 큰 대회가 열리는 거니까 필히 참석해라 해달라고 하면...
충남: 박재홍	계획서를 쓸 때, 이제 작년에 1회 대회 때도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도 처음에는 다 공동 주관 주최 뭐..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은 그 글귀 하나가 중요합니다. 주최측에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보내놓으니까 갑작스럽게 도지사가 일정이 다 결정했다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못 오듯이...그 기관의 역할을 진짜 초청장에서 기입해줘야 합니다.
의장: 홍순봉	공동 주관이나 주체는 예산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그게 확보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가 돼 줘야 그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충남: 박재홍	예를 들어서 이 회장님 말이야 저한테도 처음에 이런 대회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이번에 2회 때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비라도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지사가 그 자리에 오게 하려고 . 주체는 당연히 우리 스포츠연맹에서 되겠지만 공동 주관이라도 강원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줘야 지사가 마음 편하게 온다.
의장: 홍순봉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제가 아까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사실은 계속하면 순회 개최를 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지역 예산과 매칭을 해서 대축제를 해서 시각장애인 참여 종목도 늘리고 시각장애인 참여하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선수들도 늘리고, 임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 번 이 대회 기간도 좀 더 늘려서 한 3박 4일 이 정도로 해서 좀 큰 잔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보시자고요.
대의원 일동	예.
강원: 임조성	아무튼 그건 저 가급적이면 저희가 3월 8일까지 우리 장애인 체육회는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서가 들어가야 그거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아마 우리 담당하고 우리 저기 이정현 국장하고는 아마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홍순봉	박 국장하고 이정현 국장하고 계속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 계속 같이 논의 좀 하시고. 회장님들은 우리 회장님 보고해야 될 부분은 저하고 같이 회장님하고 상의하시죠. 그 다음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없습니까?
충남:박재홍	이제 끝냅시다.
의장:홍순봉	회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회장 일동	예.
폐회선언	
의장: 홍순봉	예.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올해 다들 우리 시각장애인 체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잘 풀리고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들 감사합니다.